

*** 과목 및 주제 ***

영어과 세특 >> 'Lesson 8: Living With Robots' 연계

***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

영어 세특 주제 및 내용 정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사회학과를 희망하시는 _____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Lesson 8: Living With Robots'와 연관지어 '기술 발달과 생명윤리: 'Brave New World'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선정해드렸습니다. 교과서 지문을 통해 관련 심화 내용을 탐구하였다는 세특은 교과 과목 내용과 연계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의하시면 좋은 점은 세특 보고서는 진로와 관련된 주제 선정도 중요하나 그 과목에 있어서의 심화 학습 내용과 심화성을 추가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과 과목에서는 직접 도서를 읽고 관련 내용을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 보고서에 포함하여 독해 및 영작 실력을 강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기본 내용	1. 교과서 연계		
	교과 단원	Lesson 8: Living With Robots	
	희망 학과	사회학과	연계 전공 과학기술사회학
	관련 제재	미래 사회와 로봇	
	세특 주제	기술 발달과 생명윤리: 'Brave New World'를 중심으로	
	연계성	Lesson 8: Living With Robots을 읽고, 로봇 기술의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간의 삶의 어떤 편리함을 줄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닙니다.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기술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특히 로봇 기술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다양한 생명 윤리 문제를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올더스 헉슬리의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를 선정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다루는 것은 주제로 선정해드렸습니다. 로봇 기술은 인간과의 상호작용, 일자리 변화, 개인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멋진 신세계'에서 다루어진 과학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 탐구 주제 설명		

	<p>'멋진 신세계'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도전적인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학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사회 구조, 권력 동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며, 인위적인 생명 조작이 인간 본성과 사회적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설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확산이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와 연계됩니다. 또한, 인위적인 생명 조작은 사회적 계층, 윤리 기준, 자아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학적 주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 간 접근을 통해 현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탐구 flow 추천</p>	<p>■ 서론(주제 선정 이유 및 탐구 주제 제시)</p> <p>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생명) 창조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양한 생명 경시, 인권, 자율성과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였고, 생명윤리는 생명공학에 있어 가장 대두가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p> <p>사회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써 이러한 생명 윤리 문제를 풍자하고 있는 'The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를 읽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 윤리 기준, 자아 정체성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 및 고찰해보는 탐구를 진행하였다고 서론을 서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p> <p>■ 본론(멋진 신세계에서 나타난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문제 분석)</p> <p>소설 속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공학과 윤리적 문제를 고찰해보았다는 내용이 본론의 주를 이루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다혜 학생이 사회학에 관심이 높은 학생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래 별도로 제공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p> <p>■ 결론 (분석 에세이 작성/느낀 점 및 배운 점)</p> <p>소설 속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윤리적 문제를 고찰해보는 주제를 선정하여 에세이를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사회 운영과 인간 윤리에 있어 '생명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주제를 뽑아 에세이를 작성해드렸으니 활용하시어 짧게라도 보고서에 포함하시면 더욱 의미 있는 세특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p>
<p>예시 세특 내용</p>	<p>* 예시 세특 내용은 제공해드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시, 생활기록부에 작성될 수 있는 추천 내용입니다. 다혜 학생이 사회학에 관심이 높음과 동시에 영어도 잘하는 학생임을 강조할 수 있는 세특 내용의 예시임으로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후 세특을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 <p>Lesson 8: Living With Robots를 학습한 후, 심화적으로 로봇 공학이 갖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Brave New World'를 읽어보았는데, 단순히 책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흥미로운 구어적 해석을 메모해놓거나 주제별로 분석서를 작성해보는 과정을 통해 작문 능력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p>

나아가 생명공학의 발달과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을 억압하고, 정체성의 확립조차 허락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 양상에 주목하여 이가 경고하는 바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속에서 제 영어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고, 단순히 지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지문을 바라보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Character와 Plot을 중심으로 인물의 Acculturation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인 Close Reading을 통해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멋진 신세계> 분석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신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생명 창조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곧 과학기술은 세포 및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생명의 신비와 생명체 탄생과정에 대한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의 놀라운 결실이다. 예컨대, 1978년 영국 올드햄병원(Oldham General Hospital)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첫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이 태어났고, 이 성공은 많은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더 나아가 1996년 영국 Roslin Institute의 윌멧 박사(Dr. Wilmot)팀에 의해 이루어진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은 생명공학기술이 생명의 경외감을 범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세계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줄기세포를 통한 인체기관 복제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적지 않은 결실을 내고 있다. 이 시점에 이르자 종교계 및 생명윤리학적 관계자들은 가장 존엄하고 귀중해야 할 생명을 상업화하려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동시에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학회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명윤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너져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윤리학(bioethics)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학은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행위 혹은 그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에 바탕을 둔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이미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 및 복제를 통해 생명체 혹은 인간을 생산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결과 생명윤리학은 유전공학, 생명공학, 그리고 의학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윤리 연구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생명윤리 연구는 곧 포괄적으로는 전체 생명체를, 그리고 제한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인간존재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삶이 작위적인 형태로 조작되고 통제되는 모습을 앨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1932)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멋진 신세계에서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간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현 시점에 이르러 과거의 소설들에 나타난 생명의 창조/생산 과정과 그 결과를 살피는 작업은 생명공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 <멋진 신세계>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의 발달과 생명윤리

본론
내용

오늘날의 유전공학 기술과 인간복제 기술의 문제점은 멋진 신세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간생산 방식은 '런던 부 화세뇌 센터'(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er)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카노브스키 공정"(Bokanovsky Process 6)으로 하나의 배아를 수백 개로 "가지분화"(budding 6) 시켜 그 만큼의 맞춤형 아기를 대량 생산해내는 식이다. 이 사회의 모토가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Community, Identity, Stability 3)인 것을 고려하면 인간은 그 사회 공동체 유지와 안정을 위해 기계로부터 생산된 동일한 제품이자 소모품일 뿐이다. 따라서 포드(Henry Ford)의 "대량생산 방식을 생물학에 응용해"(7) 아기를 생산하는 보카노브스키 공정은 그 사회에서 일컫는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런던에서의 이러한 아기생산 방식과 원시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야만인 보호구역(Savage Reservation)에서의 전통적인 아기생산방식과의 비교는 멋진 신세계의 생명윤리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명은 곧 멸균"(121)이라고 여기는 런던인들에게는 야만인 보호구역 에서와 같이 부모에 의한 전통적인 아기 생산은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로 간주된다. 또한 프로이트(Sigmund Freud)를 "가족생활의 엄청난 위험성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람"(39)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부조리성을, 특히 아버지로 가득한 곳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버지 중심의 현대사회와 가정을 비판한다. 결국 이 세계에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family)과 '부모'(parents)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용어들도 금기시된다. 그 사회는 심지어 아기조차도 과학기술을 통해 인공생산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붕괴되어버린 곳이다. 끊임없는 인간의 과학적 지식 욕구는 인간애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 반면 오늘날 과학기술 수준이 과학기술혁명, 정보통신혁명, 유전자혁명 단계, 그리고 모든 것이 통합 발전된 GNR(Genetics, Nano-technology, Robotics) 혁명단계에 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멋진 신세계는 이 최종적인 단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참고 및 출처: 출처: 추재욱_현대영미소설_제16권 2호_프랑켄슈타인과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과학과 생명윤리 연구 -포스트휴먼 시대의 생태학적 생명윤리

결론
내용
(예시
에세이)

<Dystopia Under Human Emptiness>

We all chase for well-being in one's life. Especially in today's society, we rely much of our living on technology to enjoy more affluent life. Extraordinary breakthroughs in science, such as robotics, nuclear fusion and internet have brought lots of benefits to human society and raised man life to an unprecedented level. However, excessive pursuit of advancement in technology may become the very body of the untruth. A lot of the ethical dilemmas lurk under the brightness of development and the novel "*Brave New World*" clearly emphasize the danger of future society under the prodigious development through totalitarianism and the loss of individuality.

"Brave New World", depict a catastrophic future society in thrall of power and regulated by sophisticated social control. The completely organized society and the preordained caste system are justified under the ostensible

reason for the social stability. For example, the citizens of *Brave New World* also suffer from the scientific caste system, even though they don't realize the immorality and the unfairness of it. Throughout the Bokanovsky Process and hypnopedia, they blindly carry out their duties given to them as their life. As a result, people are prevented from having an identity and that's what the government aimed for. Easy control of people without any disobedience.

Therefore, the absence of individuality is being regarded as the key ingredient for stability in the novels. The governments in the novel try their best to eliminate the individuality of their citizens in order to easily control them. They view individuality as a potential risk to the stability of society, since it could cause the revolt or reform of the public. Citizens of districts cannot fully get the chance to find their identity. Furthermore, in the *Brave New World*, emotions were controlled with chemical compound called Soma. The society tries to restrict individual emotions, because emotions are the fuel that drives man to act on a belief, think and have a subjective view. "Everyone belongs to everyone else." Mustapha Mond states that freedom is unnecessary if everyone is fully happy without freedom, which means that suppression of freedom cannot be blamed, if all classes are fully satisfied with their life and they don't even look for their own rights of freedom. However, establishment of one's identity and freedom of the individual are essential for rich human being. Human cannot develop without the ability to think and express.

Without freedom, human beings cannot become fully human and that freedom is therefore supremely valuable. And that's why we are always on the horns of an ethical dilemma between social stability (benefits) and the individual's freedom. The society needs to find a neutral point between public and individual, and we must remember that we are the one who forms and develops our society. Society could become a better or worse place depends on the individual's behavior and efforts. There cannot be a perfect world where everybody can satisfy, but I certainly believe that's why we must keep agonizing the way our society should ahead to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자료#1: [시사진단] 멋진 신세계(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1932년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미래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린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려진 미래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멋진 신세계'는 '공유·균등·안정'이라는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만, 그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엄격한 통제 안에서 규정된다.

모든 인간은 '인공부화소'라는 곳에서 체외 수정된 후 복제되고 유리병에서 배양된다. 최대한 많은 수의 일란성 쌍생아를 복제시켜 인간을 대량생산한다. 사회적 수요에 따라 유리병 안에서 이미 계급이 결정되고, 그에 합당한 지적 능력과 신체적 조건을 갖추도록 화학적 처리(현재의 기술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를 받고 태어난다. 올더스는 유명한 생물학자인 토마스 헨리 헉슬리의 손자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해박한 생물학적 지식으로 인해 그가 묘사한 인공부화소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체외수정, 인간복제, 인공 자궁,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 등과 쉽게 연결된다. 부부의 일치 행위에서 소외된 생명의 시작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인간복제 기술 또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문제이다. 인공 자궁은 연구 또한 진행 중이며,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전으로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보면 국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한다. 수면식 교육법이라는 방식으로 모두 규율이 녹음된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옹고 그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세뇌교육을 성인이 될 때까지 받는다. 아이들은 자유로운 성행위를 독려받는다. 겉보기에는 성의 자유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의 의미가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이해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 세계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리 없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은 불쾌한 사실이며, '임신'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정된다. 또한 '일부일처제'는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다. 한 사람을 몇 개월 이상 만나는 것은 비정상이다. 오히려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은 정상이다. 성은 철저히 사랑과 분리되어 쾌락만을 추구한다. '만인은 만인의 것'일 뿐이다. 소비는 무조건 좋은 것이며, 행복은 너무나 쉽게 도달한다.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면 된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 그램짜리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네. ...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기독교 정신을 터득하는 것-그것이 소마의 본질일세.”

사실 이 소설은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현대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풍자하고 있다. 과학의 진보와 밀착된 전체주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물질적·향락적·소비적이며, 성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철저히 분리하는 사상과 문화와 함께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극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참된 가치와 진정한 필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비판적 감각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생명의 복음」 95항)

출처: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01598&path=202105

자료#2: 멋진 신세계 리뷰

지난 3월, 이세돌(프로바둑기사9단)과 알파고(구글 딥마인드 '바둑'인공지능)의 이른바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바둑 대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최근 10년간 세계바둑계 최강자였던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의 바둑 대결, 사람들은 '이세돌'의 승리를 믿었고 바랐지만 승부의 결과는 4대1로 패배하였다.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바둑', 수많은 '경우의 수'와 '직관'이 필요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것이다. 당황, 경악, 좌절로 이어진 패배의 충격은 컸으며 이후 국내엔 때 아닌 바둑열풍이 불었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미래 앞에 새삼스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불쑥 다가온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과 대결을 하고 인류를 지배한다. '영화처럼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공격받지는 않을까. 우리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내줘야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이 든다. 예측은 하면서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래'이기에,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은 지울 수 없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펼쳐 든 것은 우연이었다.

작품은 1932년 출간되었는데 당시의 유럽은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정권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아리안 인종의 유전적 우월성을 주창하며, 나치스가 정권을 잡는 시기였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대인과 집시에 대한 박해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당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우생학'이 있었는데, 나치스는 학살과 더불어 생체실험도 일삼았다. 오늘날 생명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배아복제금지 및 엄격한 관리 아래 제한적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기본법' 등이 있으나, '생명윤리'의 문제는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명사회는 포드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며 '공동사회, 동일성, 안정'이라는 모토의 '세계국가'가 통제한다. 9년 전쟁의 탄저균폭탄 이후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 예술, 종교는 억압되고 더 이상의 과학발전은 불필요하며 통제된다. 유전자조작, 배아복제 등을 이용해 수많은 '쌍둥이' 인간들을,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처럼 만든다. 이때 인간은 배아변형을 통해 영리하고 어리석음의 정도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5가지 계급으로 나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옷으로 구분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멋진 신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지금껏 인류의 '계급사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학자계급, 노동계급, 노예 등의 계급사회로 그려진다. 역사를 건너 근현대만

살펴보더라도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사회는 당원과 비당원으로, 자본주의사회는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로 부의 계급사회를 이룬다. 인종차별 또한 다른 이름의 계급사회이다. 자유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링컨'의 노예해방선언(1863년) 이후에도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1954년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있는 후부터라는 사실은 놀랍다. 더불어 현재 미국대선주자인 공화당의 '트럼프'후보는 아랍무슬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 비하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을 얻는 현실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우리 인류는 '계급사회'의 구조를 부정하고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알파에게는 알파의 일을 시킨다는 것이예요. 엡실론만이 엡실론다운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의 운명은 스스로 어찌지 못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섭게 설득된다.

어릴 때부터 계급의식은 수면교육, 최면교육을 통해 반복 학습 된다. 이런 반복 학습교육은 흡사 학생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을 학생에게 암기시키는 '주입식교육'과 같다. 전통적 교육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자유·경험·생활·창의 등을 존중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진보주의교육'의 정신을 새삼 떠올려 본다. 반복학습을 통해 '책'과 '꽃'에 대한 거부반응을 형성시키는데 꽃은 인간에 감성을 만들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킨다. 즉,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감성은 소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는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물건을 대량생산하게 한다. 그러므로 꽃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에 감성 따위는 필요 없는 사회다. 이런 논리는 문명사회의 경제를 통제하는 통치행위이다. 책 또한 옛것이기에 버려진다. 옛것은 고전을 뜻한다. 전해지는 인류의 역사, 정치, 문화, 예술분야 등을 통해서 얻게 될 고전의 가치를 배제시켜, 찬란하고 송고한 인간존엄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므로 책에 대한 거부반응을 학습시켜 인문학을 금지하는 것 또한 정치를 통제하는 통치행위다. 문명사회의 책과 꽃의 거부반응 학습은 세계국가를 유지하는 정치, 경제적 안정화 정책인 것이다.

버나드와 레니나는 뉴멕시코 보호지역(야만사회)을 여행하던 중 그곳에 남겨져 아들을 낳고 살던 린다를 만난다. '병'에서 태어나는 문명사회의 아기들에게는 부모가 없다. 형제자매 또한 없다. 가족이 없는 것이다. 가족과 가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문명인들은 모른다. 태생의 어머니를 갖는 건 그저 외설스럽고 불결할 뿐이다. 자연태생과 모유수유 등은 야만인의 것으로 치부된다. 가족은 출산을 통해 자신의 유전을 이어받는 생물학적 자녀를 낳아 종족을 번식시키면서 인류 역사를 유지해온 인간적 행위의 뿌리이다. 인류는 지금껏 그렇게 존재해왔다. 문명사회는 가족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시킨다. 린다의 남편이자 그 아들 존의 아버지가 자신을 아이슬란드로 속칭시키려했던 '인공부화 및 행동조절국'의 토마킨 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버나드는, 토마킨을 저지하기위해 그 앞에 린다와 존을 데려온다. 야만인 존은 '멋진 신세계'를 찾아 영국 런던(문명사회)으로 왔지만 그가 겪게 되는 운명은 잔혹하다. 린다는 토마킨을 향해 사랑에 매달리고 존은 '나의 아버지'를 외친다. 하지만 토마킨은 이들을 부정하며 국장직에서 물러나 사라진다. 이 사건은 자연출산과 가족관계가 금지된 문명사회 내에 화제가 되고 야만인 존은 유명인사가 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은 단지 영화 '킹콩'처럼 밀림에서 문명사회로 데리고 온, 서커스 쇼의 킹콩을 보는 흥미일 뿐이다. 실의에 빠진 린다는 '소마'를 과다복용하고 결국엔 목숨을 잃는다. 어머니 린다의 죽음을 지켜본 존은 '가족'이 없고 '관계'가 없는 상실의 문명사회임을 자각한다. 사람들에게 소마는 독약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유'를 외치며 소마를 던져버리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문명인들에게 있어 '소마'는 행복을 주는 약이다.

문명사회는 통제수단의 보상으로 소마가 배급되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장려된다. 소마는 정신을 지배하는 약으로서, 복용 후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은 만족을 주고 만족은 개인의 안정을, 개인의 안정은 불만을 없애고, 불만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적·정치적 불만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지배계급에 의해 평화롭게 통제된다. 성관계는 감각의 영역이다. 감각에 길들여지는 문명인들은 육체관계를 통해 쾌락을 얻는다. 감성 없이 감각만 남은 인간에선 사랑은 없고 동물적인 쾌락만 있을 뿐이다. 감각은 결국 감성과 대치된다. 감성은 사랑이다. 순간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인간의 본성이다. 육체관계를 원하는 레이나와 사랑을 원하는 존의 갈등은 결국 감각과 감성이 충돌하게 되는 문제이다. 문명사회, 더 이상 이곳에 '사랑'은 없다 가벼운 '쾌락'만이 존재할 뿐이다.

'멋진 신세계'가 보여주는 문제는 인종, 계급, 가족의 문제이며 이는 곧 '관계'를 뜻한다. 가족은 해체되어 없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는, 통제된 사회의 계급과 감각에 의존하는 성관계뿐이다. 인간관계가 부정되는 문명사회에서, 인간성이 상실된 인류는 기계 톱니바퀴의 부속품처럼 주어질 역할만 하며 굴러가고 있다. 진리와 아름다움 대신에 편안함과 행복을 강요하는, 세계국가를 통제하는 10명의 국장 중에 1명인 서유럽주재 세계국장 무스타파 몬드에게 존은 '불행할 권리'를 주장한다. 현실의 우리에게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국가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자유권이지만 작품 속 행복은 철저한 통제와 간섭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행복이다. 강요된 행복이 주는 허위에 맞서 존은 부정한다. '불행할 권리'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진실의 요구이며 종교, 예술, 자유의 요구이며, 더 이상의 과학발전과 변화를 거부하며 안정을 내세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에 대한 개혁의 요구이며, 이는 상실된 인간성회복을 위한 요구인 것이다.

작자인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영국출생으로 그의 가족은 친가와 외가 모두 집안대대로 생물학, 과학 분야의 학자와 문인이 즐비하였다. 성장배경과 가정환경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듯하다. 작자 스스로 '멋진 신세계'는 '미래에 관학 책이며, 과학의 진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가 인간 개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야하는 낯설고 흥미로운 단계에 섰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에서 연거푸 3패를 한 후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남겼고 뒤이어 값진 1승을 거두며 깊은 감명을 주었다. 미래는 단지 인공지능과 과학발전의 이기에 맞서 싸우는 인류가 아닌, 바로 인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현재 우리들 각자의 몫이다.

출처: 멋진 신세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_YES24 블로그